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1991. 7. 13

朴 英 圭(國際研究室 前任研究委員)
金 晟 鎮(國際研究室 研 究 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序 論	3
2. 소련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4
3. 미국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11
4. 東北亞에서의 軍事秩序 再編可能性 검토	18
5. 結 論 : 최근의 東北亞 情勢가 韓國 安保에 미치는 영향	25

빈 면

1. 序 論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國際秩序는 정치·군사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高位政治(high politics)에서 경제관계가 주요 내용이 되는 低位政治(low politics)로의 이전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가 소련의 외교정책에 도입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989년 12월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의 冷戰體制 종식과 平和共存 선언, 1990년 10월 독일통일, 1991년 6월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 WTO) 해체 등 가시적인 국제질서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소련 외교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아·태지역에도 투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과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아·태정책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1989년 5월과 1991년 5월 중·소 정상회담, 1990년 9월 일·북한 수교 원칙합의, 1990년 9월 한·소수교, 1990년 10월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 1991년 4월 한·소, 일·소 정상회담, 그리고 1991년 5월 북한의 유엔가입의사 표명 등에 이르기까지 아·태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에서의 변화는 域內國家간 정치·경제관계의 변화는 물론, 유럽과 달리 冷戰的 軍事對立이 지속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절 가능성까지도 예견하게 하며, 韓半島 安保環境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해 군사적 조절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 가능성은 양대세력인 미·소간의 군사적 조절이 중요한 변수로 작

※ 이 글은 1991년 6월 本 研究院에서 개최한 統一問題關聯 國內學術會議 “轉換期的 東北亞秩序와 南北韓關係”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용하고 있는 바, 먼저 미·소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의 특징을 살펴 보고, 동북아 군사질서의 특징과 재편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의 동북아 정세가 韓國 安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소련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대내외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외교영역에서의 “새로운 思考,” 그리고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集團的 安保와 군사력 유지 수준에 있어서의 “合理的 充分性”으로 특징지워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經濟沈滯에서 비롯된 것이다.¹⁾ 이와 함께 1980년 초 미국이 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을 추진하면서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따른 경제부담을 더 한층 우려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경제개발을 소련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國際環境을 조성하고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에 있어서 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軍事力 減縮과 해외주둔 蘇聯軍의 撤收, 그리고 地域紛爭의 政治的 解決을 추진하고 있다.

1) 특히 소련 GNP의 경우, 1950~81년 성장률은 연평균 4.6%로 같은 기간 미국의 3.4%를 능가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은 1982년에 이르러 1.5%로 둔화되었다.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 56.

2) 1986년 10월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SDI 추진에 대해 “미국은 최근 값비싼 宇宙武器 개발경쟁을 통해 소련을 經濟的으로 고갈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Address by Gorbachev on Soviet Television”(October 14, 1986), trans. in *FBIS-SOV-86-119* (October 15, 1986), p. DD9.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의 아·태 정책 역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소련은 유럽에 정책적 우위를 두어 왔으며, 아·태 지역에 있어서는 미·소 대결이라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아·태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소련의 아·태 정책은 市場經濟로의 전환 및 유지를 위한 외국자본, 기술, 전문가의 유입, 아·태지역에서의 우호적인 安保環境의 창출, 아·태 공동체 회원자격 획득 및 영향력 확보,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권력 유지에 필요한 國際環境의 모색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³⁾

소련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은 1985년 5월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의 訪蘇중 고르바초프가 아시아의 安保問題를 다루기 위해 헬싱키 모델을 모방한 “全아시아 會議”(All-Asian Forum)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최초로 대외적으로 천명되었다. 이후 소련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은 고르바초프의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1988년 12월 유엔연설,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블라디보스톡 제안,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연설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소련의 아·태지역 접근은 內容別로는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關係改善, 지역내 安保體制의 수립, 그리고 소련의 아·태지역 經濟協力機構에의 참여로 대별된다.

첫째, 소련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은 중국과의 정치적 화해, 일본의 경제협력 획득,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유도, 그리고 기타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3) Hiroyuki Kishno, “Soviet Policy Toward the Asia-Pacific and Japan-U.S. Policy Coordination” Policy Repor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robal Peace(Tokyo), December 1990, p. 9.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관계는 흐루시초프의 등장과 1969년 우수리江에서의 武力紛爭으로 악화된 이후 198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에서 胡耀邦 총서기가 언급한 중·소 국경 및 몽고국경에서의 소련 군사력 철수, 캄보디아를 침략한 베트남에 대한 지원중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철수 등 “3대장애”해결이 관계개선의 관건이었다.⁴⁾

중·소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마련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에서 改革政策이 추진되면서 양국은 각자의 국내문제에 주력하기 위해 국경문제 해결을 포함한 관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⁵⁾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언제라도, 어느 수준에서라도” 중국과 양국간의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소련은 1986년 10월 중국과의 차관급 협의에서 캄보디아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1989년 2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 철수를 완료하고, 1989년 5월 몽고주둔 소련군 철수를 시작하였다. 중·소는 이러한 관계개선 장애요인의 해소노력에 따라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방중시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이어 양국은 1991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東部國境線 획정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軍事協力을 포함한 관계증진에 합의하였다.

소련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이 지역에서 소련이 추구하는 多者間 協議機構 창설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소관계 개선의 최

4) Hu Yaobang, “Create A New Situation in All Fields Socialist Modernization,” Report to the 12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eptember 1, 1982), *Beijing Review*, Vol. 25, No. 37(September 13, 1982), p. 31.

5)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 A New Beginning?” *Foreign Affairs*, Vol. 68, No. 1(Winter 1988/89), p. 123.

대 장애요인은 北方島嶼問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수정, 일본과 北方領土問題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의 軍備減縮에 따라 오토츠크해를 근거로 한 核抑止力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4개도서 반환시 예상되는 내부 반발이 고르바초프의 국내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국경교섭 때처럼 쉽게 양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⁶⁾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북방영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는데 그쳤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비해 한국과의 관계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직접 지칭하여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이후, 양국간의 교류는 활발히 전개되었으며,⁷⁾ 1990년 9월 수교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이 과정에서 30억 달러의 經濟支援을 확보하였으며,⁸⁾ 1990년

6) 고르바초프의 訪日과 때를 같이하여 옐친은 북방 4개도서와 관련, 액수와 관계없이 알래스카를 처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팔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표도르프 사할린주 지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북방 4개도서를 일본에 양도할 경우 실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東亞日報」, 1991년 4월 16일 ; 또한 1991년 4월 야조프 소련 국방장관도 소련은 일본과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1년 4월 10일.

7)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1987년 총 2억 달러, 1988년 2억 9천만 달러(1987년 대비 39%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1989년에는 6억 달러로 1988년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東亞日報」, 1991년 10월 4일.

8) 이는 1990년말 서방의 對蘇 經濟支援에 있어 독일의 140억 달러, 이탈리아의 72억 달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번째로 큰 규모이며, EC의 13억 4천만 달러, 일본의 27억 5천만 달러 보다 많은 액수이다. 村上隆, “고르바초프의 訪日과 일·소 경제관계,” 「共産圏研究」(1991. 3), p. 130 참조.

12월과 1991년 4월 양국정상 교환방문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소련은 브루나이를 제외한 쏘 ASEAN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⁹⁾ 소련은 이전까지는 ASEAN 국가들의 獨自性을 부인해 왔으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여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였다.¹⁰⁾ ASEAN 국가들 역시 1989년 2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철수와 몽고 및 캄란만에서의 철수를 소련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¹¹⁾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회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들은 1989년 7월 베트남, 인도와 함께 소련 太平洋艦隊의 東海上 기동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둘째, 소련의 아. 태지역에 대한 접근에 있어 주변국들과의 雙務的 關係改善과 함께 地域內 集團安保體制의 수립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서 행한 政治報告를 통

-
- 9) 소련과 ASEAN 국가들 간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 3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 순방, 1988년 12월 필리핀 방문, 그리고 1990년 2월 라즈코프 소련 총리의 태국 및 싱가포르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최고위급 소련 인사의 방문이었다. 이와 함께 1987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외무장관과 말레이시아 총리가 소련을 방문하였다. 1988년 5월 프렘 태국 총리는 소련을 방문하여 淸同貿易委員會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1989년 9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소련을 방문, 貿易·經濟協定을 체결하고 정기항로 개설에 합의한 바 있다.
- 10) 이에 대해 프리마코프 소련 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이전에 소련은 ASEAN국을) 명백히 반소적인 잠재적 軍事集團으로 인식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러한 입장에서 탈피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Interview with Yevgeny Primakov,”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42, No. 42(October 20, 1988), p. 36.
- 11) Susumu Awanohara, “Withdrawal Symptom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47, No. 6(February 1, 1990), p. 8.

해 포괄적인 國際安保體制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이어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대평양 연안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헬싱키류의 會議”를 제안하였다.¹²⁾ 소련의 이 같은 입장은 1988년 7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부터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즉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7개항”을 제시하였으며, 1988년 12월 유엔연설에서는 아시아 지역 소련군 20만명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하였다.¹³⁾ 이어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1990년 9월 블라디보스톡 제안에서 아·태지역 “多者間 協議體” 구성과 1993년의 아·태 외무장관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소련의 이 같은 제안은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訪日중에 행해진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도 거듭되었다. 즉,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국가간의 군축추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소·미·일 3국회의 및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多者間 協議機構 창설을 위한 소·미·일·중·인도간의 5개국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91년중 중거리 핵전력(Intermediate Nuclear Forces : INF) 166基 추가 폐기, 소련 동부 병력의 20만명 삭감, 극동지상군 12개 사단과 11개 항공연대 해체 및 금후 태평양함대의 대형 수상함 9척, 잠수함 7척 등 함정 16척이 퇴역한다고 발표하였다.¹⁴⁾

세번째로 주목할 만한 소련의 아·태지역에 대한 접근노력은 아·태 經濟協力機構에의 참여이다. 소련은 아시아 경제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ASEAN의 협의대상국(dialogue partner)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2) 미하일 고르바초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울: 슬라브 硏究社, 1988), p. 65.

13) 고르바초프는 2년에 걸친 50만명의 兵力減縮計劃을 선언하였는 바, 이는 구체적으로는 유럽 주둔군 24만명, 아시아 주둔군 20만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 소련 남부접경지대 주둔군 6만명을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中央日報」, 1988년 12월 8일.

14) 「東亞日報」, 1991년 4월 17일.

소련은 1986년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와 1987년 아시아開發銀行(ADB)에 각각 읍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1년 7월 ASEAN 외무장관 회담에 초청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소련의 새로운 아·태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와 東南亞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은 東北亞에서 한국과 정식 外交關係를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思考" 하에 소련의 對外政策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아직 이 지역에서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은 軍事·經濟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정책의 다른 두 주요 목표인 지역내 集團安保體制 수립 및 經濟協力 分野에서 踏歩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은 "새로운 思考"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도 종전의 軍事의 方法에 의존하던 데에서 탈피하여 政治的 接近을 통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의 域內 영향력 약화를 만회 내지는 보완하려는 노력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소련의 아·태정책은 安保·軍事問題를 최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의 "太平洋會議" 제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아시아·태평양協議體" 제의 및 세바르드나제의 "汎아시아會議" 제의 등은 그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유럽安保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에 準하는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아·태지역에서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소련은 아·태 안보협력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우와 같이 아·태지역의 安保秩序再編에 주도적인 역할

15) 「東亞日報」, 1991년 6월 16일.

을 담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소련의 政策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지역내 국가들의 보다 용이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세바르드나제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汎아시아會議”의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주요 軍事強國 외무장관회의, 淸아시아 외무장관회의, 淸아시아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고르바초프는 東京연설에서 소·미·일 간의 3국회의 및 소·미·일·중·인도 간의 5개국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넷째, 소련의 아·태정책은 아·태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외교 및 경제관계 증진도 겨냥하고 있는 바, 이는 中·蘇 關係正常化, 韓·蘇 修交 및 日·蘇 關係改善 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集團體制” 구상은 對中國 封鎖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반면에, 고르바초프의 아·태안보협력체 구상은 아·태지역 非核地帶化 및 이 지역에서의 海軍力 減縮 주장 등에서 표출되는 바와 같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¹⁶⁾

3. 미국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 및 시각은 아·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유럽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전통적인 威脅概念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내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압력으로 인해 동맹국의 防衛分擔

16) 이와 관련하여 1990년 2월 소콜로프 필리핀 주재 소련대사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의해 캄란만 주둔 소련군이 감축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아·태지역에서 他國家의 지속적인 海軍力 增強이 전략적으로 심각한 不安定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 이 지역에서의 海軍力 減縮會談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90년 2월 2일.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태세의 성급하고 과도한 변경은 地域安定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利害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前進配置, 海外基地維持, 雙務的 安保協定維持 등 기존의 아시아 전략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 지역에서 앞으로도 지역균형자, 양심적 중개자 및 최종적인 안보 책임자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¹⁷⁾

미국이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0년 4월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년-워너(Nunn-Warner) 수정안에 따른 安保政策報告書 “21世紀 亞·太戰略概要”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유럽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폭넓은 이익을 가진 太平洋 國家이다. 미국은 제1차 世界大戰 이래 민주주의적, 시장 지향적 정부의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으로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경제적으로 이 지역은 미국의 최대의 무역상대 지역으로 유럽을 능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1990년 2월 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의 上院 軍事委員會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東北亞는 4강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이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안정과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 지역 교역량은 유럽의 교역량을 크게 능가 하였으며, 미국 경제의 사활은 이 지역에 연결되

17)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1.

18) Ibid.; 태평양 지역 交易量은 매년 3,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대서양 交易量보다 50%를 상회하는 것이다. Ibid., p. 8.

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⁹⁾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 雙務關係를 기반으로 對蘇 封鎖政策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아·태정책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유럽에서 冷戰終熄이 선언되고 아·태지역에도 脫冷戰의 인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아·태 戰略環境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향후 10년이 전환기로, 첫째, 중·소·북한·캄보디아에서의 정치적 불안 및 혼란과 중국·북한·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서의 지도자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극동군관구의 소련 군사력이 소련의 일방적인 軍備減縮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 이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소련의 軍現代化 計劃 특히 해·공군의 現代化가 이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⁰⁾ 셋째,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政治·軍事의 影響力 확대와 북한의 核武器 개발노력 역시 이 지역의 안정을 극히 저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따라서 미국은 소련만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

19)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by Gen.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IV, No. 1(Spring 1990), p. 198.

20) 이에 대해 체니 미국방장관은 "극동에서 소련 艦艇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化로 일본에 대한 소련의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Richard D. Cheney, Japan National Press Club, Tokyo(February 23, 1990), in Banning N. Garrett, "Ending the U.S.-Soviet Cold War in East Asia: Prospects for Changing Military Strateg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4, No. 2(Spring 1991), p. 167.

21) 특히 일본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스택폴(Henry C. Stackpole III) 주일 미해병 사령관은 "미국은 적어도 향후 10년간 일본의 再武裝을 막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철수시 이는 아시아를 불안정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Korea Herald*, March 28, 1990.

적, 도덕적 이익에 대한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威脅은 아니며, 점점 복잡해지고 相互依存性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약소한 地域國家들이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²⁾

이러한 미국의 인식을 고려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과 아시아 전략의 주요 요소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²³⁾ 미국은 앞으로 최소한 몇년간 강대국간의 대결(high-intensity conflict) 보다는 地域紛爭(mid-intensity conflict)을 더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前進配置戰略을 고수할 것이다.²⁴⁾ 이와 관련, 1990년 4월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이 지역 미군배치의 전통적 측면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초강대국 간의 대결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미군배치의 전통적 측면이었던 地域均衡者, 양심적 仲裁者, 그리고 궁극적 安全保障者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²⁵⁾

22) Carl W. Ford, Jr., "The U.S. Future in Asia,"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2(Winter 1990), p. 219.

23) 미국의 이익으로는 미본토의 보호, 전세계적 抑止政策 지원, 이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유지, 霸權防止를 위한 勢力均衡, 아시아 국가들의 대서방 지향 강화, 민주주의 및 인권육성, 核擴散 방지, 航海自由 확보 등이 지적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10~11.

24)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onventional Combat Priorities: An Approach for the New Strategic Era* (Washington D.C.: CSIS, 1990), p. 23; 1991년 3월 미 국방부 합동참모부가 의회에 제출한 비밀보고서를 요약, 공개한 "합참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장차 예견되는 紛爭을 유형 및 지역에 따라 ①平時介入(일반 반란 및 마약차단, 중남미), ②소규모 地域紛爭, ③미국 以東의 주요 지역분쟁(중동 및 페르시아만), ④미국 以西의 주요 지역분쟁, ⑤世界戰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韓半島와 中東地域에서의 분쟁과 유럽에서의 전쟁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朝鮮日報』, 1991. 4. 13일.

25)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

그러나 미국은 財政壓迫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존 전략을 지속하면서 그 규모나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段階的 軍事力減縮, 防衛費分擔과 同盟國의 役割增大, 그리고 아·태지역 동맹국들과의 協力強化를 모색하고 있다.

전진배치된 미군의 段階的 減縮計劃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감축의 첫단계는 향후 1~3년에 걸쳐 기존의 軍構造는 그대로 두고, 미국의 안보공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군을 재편·감축(thin-out)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3~5년 후에는 지휘체계와 같은 군구조 자체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전진배치의 골격과 지역안정 및 동맹국과의 유대를 해치지 않을 수준에서 가능한 많은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段階的 減縮에서 미국은 각 단계 후반기에 상황을 재검토하여, 감축을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⁶⁾

미국은 이러한 감축과정과 함께 동맹국과의 防衛費分擔을 통해 재정압박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은 걸프전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戰費負擔, 미군주둔에 대한 경비부담에서부터 안보와 관련된 기타 國際機構에서의 책임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미군감축 1단계의 마지막 해까지 약 7,000명의 주한미군(지상군 5,000명, 공군 2,000명)과 약 5,000~6,000명의 오키나와 주둔병력을 감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²⁷⁾ 물론 이러한 미군의 제 1단계 감축은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진배치의 포기는 아니며,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군사력 유지수준의 재조정을 의미한다.²⁸⁾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미국은 1990년 11월 한·미 年例 安保協議會에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한국과 논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26) Ibid., pp. 13~14.

27) Ibid., pp. 16~18.

서는 단계적인 미군의 역할조정과 한·미 聯合司令部 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증대, 한국의 방위분담비 증액, 戰時駐留國支援協定の 조기 체결 등이 합의되었다.²⁹⁾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아·태정책은 상호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東西關係의 진전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도 군사대립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소련이 과거부터 추구해 온 아·태지역에서의 勢力膨脹政策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³⁰⁾ 즉 미국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에 입각한 소련의 정책이 실제 행동에 의해 입증될 때까지는 現狀維持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다.

28) 이에 대해 1991년 4월 2일 칼 포드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駐屯美軍 병력수는 조정이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상당수의 美軍兵力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우리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한, 2,000년도를 훨씬 지나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일보」, 1991년 4월 4일.

29) 「朝鮮日報」, 1990년 11월 16일; 또한 한국군의 役割增大와 관련하여 1990년 6월 월포워츠 미 국방차관은 한국이 자신을 防衛하기 위해 보조 역할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에 좀더 많은 지휘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東亞日報」, 1990년 6월 27일; 한국의 防衛費 分擔額은 1990년 7천만 달러에서 1991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홈즈 미 순회대사(방위비 분담문제 담당)는 미 하원 군사위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방위비 분담액의 대폭 인상에 만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增額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戰時駐留國支援協定の 조기체결, 한국군 現代化計劃 고무, 용산 미군기지 移轉의 한국측 비용부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朝鮮日報」, 1991년 4월 12일.

30) चेनि 미 국방장관은 소련의 위협에 대해 “... 향후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소련이 여전히

둘째, 미국은 소련의 軍事的 威脅이 아직도 약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일방적 減軍措置와 관련, 미국은 소련의 병력수준과 장비가 일부 감축되는 등 다소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낡은 장비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는 대신 더 나은 현대식 무기로 대체하는 일종의 소련군 現代化 過程으로 평가하고 있다.³¹⁾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소련군이 數的으로는 감소되었지만 현대화 노력으로 質的으로는 약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³²⁾

셋째,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同盟國들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은 한국·일본·필리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지상군 減縮計劃을 발표하였으며, 체니 美 국방장관은 198개의 미군 해외기지의 폐쇄나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또한 미국은 域內 同盟國,

30) 계속

거대한 軍事強國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소련체제의 의도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소련 軍事力의 性格과 能力 양면에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보아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1990*(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5.

31) 이와 관련 소련 극동군관구 사령관 노보질로프(Viktor Novozhilov) 장군은 탱크의 경우 극동군관구 보유 탱크 6,000대중 現代化된 T-62, T-72, T-80형은 10%이며, 1995년까지 탱크 수는 4,200~4,800대로 감소될 것이고 이중 T-80형이 70~8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Far East Economic Review*, Vol. 152, No. 26(June 27, 1991), p. 24.

32) Richard H. Solomon, “Asian Security in Economics: Diversity in Defense” (An Address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ctober 30, 1990), in USIS, *Backgrounder* (November 1, 1990), p. 6.

33) 「東亞日報」, 1991년 4월 17일;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Announcement by Defense Minister Richard D. Cheney, “Proposing U.S. Base Closing: Exerpts on Closing Three American Air Base in Korea,” Washington D.C.(January 29,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IV, No. 1(Spring 1990), p. 195 참조.

특히 한국·일본에게 군사비 증액 및 합동군사훈련 등을 요구, 군사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부담을 줄이되 미국의 개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넷째, 미국은 적극적인 아·태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점증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同地域에서 미국의 기존 이해관계와 세력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역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아·태지역에서 최초의 政府間 協力機構로 제도화되고 있는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이 이와 같은 地域協力體를 경제적 실리추구는 물론 동·서 화해의 진전과 소련의 평화공세 등에 따른 미국 중심의 단결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외교·군사적 협력기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東北亞에서의 軍事秩序 再編可能性 검토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전략관계의 현상자체를 軍事秩序로 규정하는 경우, 현재의 동북아 군사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비교적 강력한 軍事力이 밀집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에는 核武器를 보유한 미·중·소 등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다. 소련은 소련 최대의 함대인 太平洋艦隊를 포함하여 증강된 極東軍事力을 보유하고 있다.³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대형 수상함 69척(항공모함 2척 포함), 잠수함 110척을 비롯하여 233대의 해

34) 소련의 極東地域은 소련의 産業 및 鑛業生産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軍事力의 1/4~1/3이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ishno, "Soviet Policy Toward the Asia-Pacific and Japan-U.S. Policy Coordination", p. 7.

군전투기와 89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³⁵⁾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태평양함대를 포함하여 東北亞에 육군 61,000명, 해군 병력 60,000명, 항모 2~3척과 대형 수상함 25척, 잠수함 7척, 해군 전투기 290대, 그리고 공군 병력 29,000명, 전투기 270대 등이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³⁶⁾ 이와 함께 東北亞에는 세계에서 세번째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대치가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는 雙務的 安保體制가 형성·유지되고 있다. 동북아에는 미·일 상호방위조약 체제, 한·미 방위조약 체제, 소·북한 상호원조 및 방위조약 체제, 그리고 중·북한 상호원조 및 방위조약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雙務的 安保體制는 기본적으로 미·소의 대립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사력 증강에 기초한 안보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는 多邊的·集團的 安保體制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 지역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에는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不在해 왔다. 이에 대해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安保威脅에 대해 多次元의인 우려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오늘날 이 지역은 多極化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 국가들에 공통된 威脅認識이 없으며, 국가간의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하위지역

35)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London: IISS, 1990), pp. 42-43; 참고로 소련의 北洋艦隊는 대형 수상함 60척(CVV 2척 포함), 잠수함 153척, 항공기 197대, 헬기 6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틱艦隊는 대형 수상함 39척, 잠수함 42척, 항공기 204대, 헬기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흑해艦隊는 대형 수상함 54척(CVV 1척 포함), 잠수함 20척, 항공기 119대, 헬기 85대를 보유하고 있다. Ibid., pp. 39~40.

36) Ibid., pp. 25~26.

(sub-region)간의 안보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多次元的인 우려양상을 보여 왔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下位安보地域, 즉 동북아, 동남아,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의 하위지역은 각각의 안보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 각각의 하위지역내 행위자들도 서로 독립적이다.³⁷⁾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 WTO, 그리고 CSCE와 같은 集團的 安보體制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지역적 수준에서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은 역내국가들 특히 미·소의 戰略變化, 대규모의 軍縮, 새로운 安보體制의 형성 등을 의미한다 하겠다.

고르바초프의 과감한 改革政策 추진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추세와 미·소 및 東西軍縮 협상은 향후 東北亞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북아에서도 유럽의 변화에 상응하는 커다란 변화, 즉 동북아에서의 冷戰終熄과 이에 따른 軍事秩序 再編이 곧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련의 결정 및 행동, 즉 주변국들과의 쌍무적 관계개선, 제3세계 국가주둔 소련군의 철수, 일방적인 軍縮 및 地域紛爭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으로 인하여 고르바초프의 아·태 이니셔티브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아·태지역에서도 미·소간 대결의 열기가 상당 수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7) Solomon, "Asian Security in Economics," p. 3.

셋째, 미국이 점차 아·태지역에서의 指導力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비용부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넷째, 유럽에 이어 아·태지역에서의 冷戰體制 종식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은 1989년 12월 몰타회담에 이어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재확인을 선언한 1990년 11월의 CSCE 頂上會議를 계기로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미·소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과 현존 東北亞 軍事秩序의 특징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요인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미·소의 東北亞 및 亞·太戰略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에는 거대한 미국 海軍力과 소련 地上軍이 비대칭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소가 軍縮對象兵力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기간내에 각각의 전략수정 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³⁸⁾ 특히 소련이 현재까지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北太平洋 특히 對美 본토 공격능력이 집결되어 있는 오후츠크海의 海軍力問題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에서 미·소간의 군사적 조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이 自國兵力을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前進配置하고 있는 이유가 소련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의 地域均衡者, 양심적인 중개자 및 최종적인 안보책

38) 이에 대해 솔로몬 미 국무부 차관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 미 소 군사력의 任務와 構造上的 상치이다. 소련은 大陸勢力인 반면, 미국은 海洋勢力이다. 미국의 안보에 있어 海路는 소련에게 있어서의 道路와 같은 것이다. 또한 소련이라는 요소는 태평양 미군의 임무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Solomon, “Asian Security in Economics,” p. 9.

임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타지역에 대한 軍事力 投射能力 유지 등임을 감안할 경우, 소련의 위협이 감소된다 해도 미국의 기본전략인 前進配置, 海外基地維持, 雙務的 安保協定維持 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³⁹⁾

둘째, 미국은 소련이 아직도 국민총생산(GNP)의 15~17%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核武器를 포함한 전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現代化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⁴⁰⁾ 이는 미국이 소련의 아·태 安保協力體構成, 아·태지역 非核地帶化 및 이 지역에서의 海軍力 減縮提案들을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 감소와 이에 따른 미국의 影響力 弱화를 거

39)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前進配置된 미군의 平和時 目標은 ①잠재적 공격에 대비한 전진배치 지속, ②아·태 지역 시설에 대한 접근 유지·확대, ③지역적 안정 유지, ④핵 및 생화학 무기 확산제한, ⑤동맹국의 地域安保責任 증대 고무, 그리고 ⑥상호 합의된 安保利害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안보협력 고무이며, 戰時 目標은 ①하와이 등 미 대륙을 연결하는 海路保護, ②지역방위에 있어 同盟國의 보호, ③페르시아만, 인도양, 동남지나해 등 태평양에서의 海路保護 등이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10~11; 코헨은 향후 미국 군사력 유지 필요성으로 ①해외 인질구조 등을 포함한 核心的 安全保障, ②지역 우방에 대한 원조를 통한 지역목표 달성수단 확보, ③우방 및 미국의 영향력을 통한 분쟁종식 능력확보, ④운송로 보호, ⑤잠재 위협에 대비한 保險的 役割을 언급하고 있다. Eliot A. Cohen, "The Future of Force and American Strategy," *The National Interest*, No. 21(Fall 1990), pp. 10~11.

40) 고르바초프는 1989년 소련 防衛費 지출이 GNP의 9%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실제 소련의 방위비 지출이 13~15%에 달한다고 시인한 바 있으며, 미국은 지난 25년간 소련의 방위비 지출이 GNP의 15~17%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방위비가 1991년에 이르러 4~5% 삭감(1989년 고정가격)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소련의 現代化計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액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1990*, pp. 4~5.

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¹⁾

셋째,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과 비교할 때 東北亞 安保環境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바, 유럽은 NATO와 WTO 중심의 명백한 兩極構造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雙務關係를 바탕으로 安保關係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절이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소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또 하나의 軍事的 變數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소련의 아·태 安保協力體 구성제외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自國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희망하고 있는 日本은 아·태지역의 군축 및 지역분쟁 등을 협의하기 위한 특정 安保機構의 설립이 日本의 역할 증대를 견제하는 것으로 인식, 반대하고 있다.

現代化計劃 및 대외 경제개방 지역의 설정 등을 통해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해 온 中國은 최근 “東北亞 經濟圈”형성 제의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東北亞 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蘇聯의 아·태 安保協力體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의 입장은 아·태 안보질서 재편

41)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 미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海軍力 減縮을 위한 소련의 제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는 美 軍事력이 긴장의 근원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에는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이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同盟國에 海路를 확보해 주는 美 海軍力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안이나, 이 지역 미 군사력을 급격히 감축시키고자 하는 제안이 신뢰를 구축할 것 같지는 않다. 이와 반대로 힘의 균형이 향후 多極化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安保介入의 감소는 힘의 공백을 유발, 다른 강국으로 하여금 이를 메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우도 록 유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Solomon, “Asian Security in Economics,” p. 8.

과정에서의 蘇聯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거부반응, 美·蘇 초강대국의 世界共同支配를 거부한다는 기본전략 및 7,000km의 國境共有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불가피한 對蘇 不信感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소련이 제의하고 있는 아·태 안보협력체 구성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域內 군사강국간의 군사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즉 CSCE는 유럽에서의 예비적 문제해결, 특히 국경선 문제 해결 및 군축협상 진전 이후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地域紛爭(캄보디아, 한반도 등) 및 領土問題(북방도서문제, Spratly Islands 등)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논의된 요인들로 인하여 軍事問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同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議體 설립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1986년 이후 東北亞地域을 포함한 아·태지역에서의 상황 변화는 주로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 지역에서의 상황변화는 소련의 양보, 특히 미·일에 대한 양보 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國內情勢(국내정치의 保守化 경향)와 기본적으로 방어위주의 소련 極東軍事力 배치 등에 비추어 보아, 소련이 군사적 조절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여섯째, 아·태지역 국가들은 소련 國內情勢의 불투명성, 즉 고르바초프 체제의 위기극복 능력과 이에 따른 고르바초프 체제의 존속문제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지속 여부를 우려하고 있는 바, 이는

42) 소련의 경우 정치 지도부와 군 지도부간의 불균형이 발견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소련 정치 지도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 태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반면 야조프 등 군부 지도자는 極東地域 출신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Kishno, "Soviet Policy Toward Asia-Pacific and Japan-U.S. Policy Coordination", p. 6.

域內國家들로 하여금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結 論 : 최근의 東北亞 情勢가 韓國 安保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볼 때, 역내 국가들 특히 미·소의 전략변화, 대규모 軍縮, 새로운 안보체제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은 소련의 획기적인 양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 변화, 그리고 지역분쟁과 영토문제 등 域內 國家間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내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韓國의 安保環境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軍備統制는 동북아 4강의 군사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태 安保體制와의 관련하에서 그 하위체제로서 이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 개선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일치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지역의 주요 세력들이 軍備統制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큰 바, 이 경우 韓半島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군비통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고르바초프는 核武器의 감축 또는 제거와 함께 아·태지역의 非核地帶化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한반도 非核地帶化 주장과 더불어 駐韓美軍 撤收問題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과 미·소 간의 군사적 절충, 그리고 美·北韓 접

근과정에서 한반도 非核地帶化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駐韓美軍의 단계적 감군이 결정된 현 상황에서 미국은 고립된 북한에게 긴장완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安保秩序 재편과 이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겨냥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現狀維持 政策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두 초강대국간의 상반된 정책은 韓國 安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韓·美 安保關係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은 궁극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남북한 양측에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수립, 추진될 것임을 감안할 경우, 한·소 수교는 소련의 自國 政策에 대한 한국의 지지 및 동참을 강요하는 對韓國 압력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韓·美 安保關係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넷째,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가 강화되고 駐韓美軍 및 한반도 非核地帶化 문제가 미·소간에 동북아 군사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내에서는 현실적인 安保狀況이 변화된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고르바초프가 독창적인 제안을 통하여 일거에 駐韓美軍 및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경우, 이는 한국내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한국의 安保政策 수립·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소련의 對아·태지역 평화공세 강화, 한·소 수교 및 한·중, 일·소관계 증진에 따라 향후 北韓의 對美·日 평화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러한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對南韓 평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한국내에서 南北韓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함으로써 한국의 합리적인 對北韓 政策의 수립 및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